

시마바라의 화산과 헤이세이신잔의 탄생

오늘날의 시마바라반도는 약 430만년간 이상에 걸친 화산 활동 및 지각 변동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 역사와 가장 새로운 산인 헤이세이신잔의 기원을 이해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지질학적 힘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형성하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쪽의 다치바나완 지하 깊은 곳에는 거대한 마그마가 있는데, 그곳에서 지면의 갈라진 틈을 통해 지표로 용암과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가스는 지하수와 섞이면서 반도에 많은 온천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도 지하의 마그마에 실리는 압력이 과잉되면 갑자기 화산이 분화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시마바라반도 중앙부에 있는 운젠지구의 존재로 복잡성이 더해집니다. 동서로 뻗은 단층이 이 일대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반도 중앙부가 천천히 침강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은 일반적으로 분화 전후와 부화 피크에 발생해 이곳에서의 생활에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럼에도 시마바라반도의 생활은 역사와 문화가 풍부합니다. 비옥한 화산성 토양은 다양한 농작물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고, 많은 화성암은 돌담이나 계단식 논을 만드는데 적합했습니다. 오바마, 운젠, 시마바라의 온천은 수세기에 걸쳐 건강을 가져다주는 장으로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치유해 왔습니다. 1792년 마유야마(819m)의 대붕괴조차도 동쪽 아리아케카이에서의 어업에 절호의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1990년부터 1995년에 걸쳐 발생한 헤이세이 대분화는 시마바라반도 이야기의 가장 새로운 장에 불과합니다. 1990년 11월 후젠다케(1,359m)가 다시 깨어났을 때, 시마바라 마을은 앞으로 일어날 파괴에 대한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년간에 걸친 분화 재해로 44명이 사망했고 수백 채의 가옥과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활이 파괴되었지만, 오늘날 지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마을은 방재를 고려하여 재건되었고, 새로운 연구소가 산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마바라반도에는 높이 1,483미터의 헤이세이신잔이라는 멋지고 새로운 산이 생겼습니다.